진흥회 동정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참가업체 모집

'98. 5. 19-5. 23 [5일간]까지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통상산업부 주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주관으로 국내 유일의 전기전문 전시회인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98)이 개최된다.

동 전시회는 중소기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전기관련 기관·단체가 후원하며 국내의 우수전기제품 비교전시를 통한 신제품 개발 의욕고취 및 기술정보교류 촉진, 국내 전기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등 관련산업 발전유도, 수출상담 기회제공으로 수출증진 및 수출선 다변화 유도등의 목적이며, 전시참가 대상품목은 중전기기, 전선, 계측제어기기, 조명기기, 발전설비 기자재 등 전기기기류를 총 망라한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그동안 국내업체 유치에서 벗어나 해외 전기관련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동남아 전력청 유력인사 초청, 해외 유명 전기전시회 참가 등으로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국제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96년 102개사(국내 : 73개사, 해외 : 29개사)가 참가하였으나 '98년에 150개사(국내 : 90개사, 해외 : 60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국내 6천만불, 수출상담 4천만불 등 총 1억불의 상담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가신청은 '97. 8. 1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참가신청 및 구체적인 내용문의는 진흥회 국제과(TEL : 3476-0271)로 하면 된다.

동남아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큰 성과

「미얀마·태국·캄보디아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최근 들어 전력 및 전력기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 중전기기 업체들의 수출 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月 24日부터 7月 4日까지 11일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에 파견된 「동남아 전기공업 수출촉진단」은 이들 3개국의 전력청과 현지 중전기기 업체와 수출상담을 실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광명기전(주)등 중전기기 업계와 한전, 진흥회 관계자로 구성된 이번 수출촉진단은 현지 조사 및 상담결과 태국은 이미 일부 전력기자재의 경우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가격을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

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얀마는 전력망사업과 발전시설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중전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얀마 전력공사(MEPE)는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EDCF 차관을 제공받아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의 기업들이 전력망과 발전설비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도 최근 SOC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발전설비를 비롯한 전력기자재 등 중전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특히 각종 SOC건설사업으로 전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크게 부족, 민자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발전설비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 및 태국·캄보디아의 전력공사는 그동안 대부분 인도산이나 대만산·중국산 제품을 구매해 왔으나 최근 불량이 잦아 기술·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력공사는 모두 한국산 중전기기 제품에 대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인도·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20~30% 비싸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진출도 미흡해 AS 또는 부품의 원활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실구매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별 AS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촉진단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력설비가 노후돼 있고 전력손실률도 매우 커 전력기자재의 교체가 시급한 데도 예산부족으로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경제협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공업진흥회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업체들이 이들 국가에 AS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한국산 중전기기 제품 이미지 향상을 위해 연 1회의 무역상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전력회사의 기술분야 및 해외구매담당 임직원을 초청, 국내업체의 기자재 생산과정·성능시험·품질검사과정 등을 견학케 함으로써 품질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미얀마는 국내 전선관련 업체가 이미 진출해 있는데다 영풍산업, 동방전기 등이 진출할 예정으로 있어 현지 전문가 및 미얀마 상무관을 초청, 투자진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NEX-MALAYSIA '97 참가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6月 15日부터 6月 21日까지 7일간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 PUTRA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ENEX-MALAYSIA '97 전시회에 참가, 홍보 활동을 벌이고 돌아왔다.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참가한 이번 홍보활동기간에는 '98년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홍보와 함께 우리나라 전기공업 동향 및 업체 생산제품과 신기술제품 등을 소개하고 안내책자 등을 배포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진흥회 홍보관을 찾은 내방객은 총 3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안

내책자 약 1,000여부를 배포했다. 또한, 체류기간 중에는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IEEMA)와 말레이지아 전기전자공업협회(TEEAM) 및 말레이지아 전력공사(TNB)와 인도 전기시험연구기관(CPRI)을 비롯 중전기기 공장을 방문하고, 상호시험인증 인정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편, ENEX 전시회는 말레이지아, 싱가폴, 태국 등 3개국에서 순번에 따라 개최되는 중전기기 전문전시회로 ABB, SIEMENS, AEG 등 주요 22개국 1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 인접국가 약 10,000명이 참관하고 있는 전시회다.

'97 산업기반기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최근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1997년도 산업기반기금중 신기술 보급(전기기기) 및 용접분야 생산성향상 사업 지원 대상업체와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기술 보급분야에 세기전자공업(주)의 "난가공성인 신소재의 가공성 향상" 등 7개 업체 7개 사업과 용접생산성 향상 사업분야에서 한국웰드몰드(주)의 "단조금형 용접재생" 사업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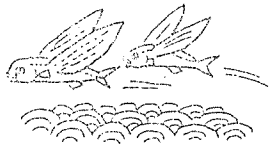
이번 선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연리 6.5%의 운전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케 된다.

■ '97 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사업(용접생산성 향상)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융 자 지 원 금 액		
			운 전	시 설	계
한국웰드몰드(주)	단조금형 용접재생	'97. 7—'97.12	—	246	246
고려용접봉(주)	피복 Arc용접재료 및 탄산가스 용접용 Wire 생산성향상	'97. 7—'97.12	—	1,054	1,054
한국알로이드(주)	Flux Cored Wire 및 Stick Rods 공정개선	'97. 7—'98. 6	—	1,000	1,000
서경브레이징	Auto Brazing M/C 생산설비 확충	'97. 7—'98. 6	—	200	200

'97 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사업(전기기기 신기술 보급)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운전	시설	계
동우전기공업(주)	Epoxy 자동주형장치 설치	'97. 7— '97. 9	—	190	190
동방전기공업(주)	몰드변압기용 적철심 자동절단기 설치	'97. 7— '97. 9	—	69	69
(주)피에스디테크	전력설비 On—Line 진단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97. 7— '98. 5	—	300	300
신아전기공업(주)	다회로차단기 및 폴리머 피뢰기용 생산설비 구입	'97. 7— '98. 6	—	759	759
현성산업사	조도 및 감도조절 기능의 자동점멸기, 센서등 보급	'97. 7— '98. 6	176	267	443
세기전자공업(주)	난가공성인 신소재($AgSnO_2$)의 가공성 향상	'97. 5— '97.10	—	350	350
캔들조명	장식등기구 품질개선	'97. 6— '98. 3	132	146	278